제101주년
3·1절 기념식

포덕 161(2020)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01주년

3·1절 기념식

포덕 161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독립선언서	12
천덕송_ 제17장 공락가	18
삼일절 노래	19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국민의례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독립선언서 낭독

1. 천덕송 합창_ 제17장 공락가 / 1절-2절

1. 기념사

1. 3·1절 노래 합창

1. 만세삼창

1. 심　고

1. 폐　식

기 념 사

오늘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찬연히 빛나는 3 · 1 독립운동 10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3 · 1운동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세계만방에 드높인 자랑스러운 민족사의 정화요 민족혼의 정수가 표출된 장거였습니다. 더구나 그 자랑스러운 3 · 1운동이 의암성사의 영도 아래 천도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우리 후학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지난해 우리는 3 · 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거행하면서 당시 국가 민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한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높이 기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의암성사께서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앞으로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국권회복을 이루어 놓으리라"고 결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낙후된 국민의 문화수준과 민도(民度)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바로 그 해 보성전문학교와 동덕여학교를 인수 경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사학을 지원하거나 경영하는 교육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국권회복을 향한 민도 고양의 포석이었습니다.

당시 교단 기관지 「천도교회월보」의 이교홍(李敎鴻) 주간 등 간부진은 경술국치의 비보를 듣고 비분강개한 나머지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일본의 강제합병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비밀리에 발송한 사실이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월보 간부진 전원이 체포 교체되는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암성사께서는 오로지 국권회복의 그날을 대망하면서 1912년부터 3년간 봉황각에서 전국 교역자 483명에 대한 49일 특별수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수련기간에 의암성사는 이신환성(以身換性) 및 성령출세(性靈出世) 법설을 통해서 장차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순교적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의암성사는 3·1운동이 임박한 기미년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도록 전국에 교시하면서 특별히 전국 교인들은 이 기간에 어육주초를 금하고 저녁 9시 기도시에는 청수상에 촛불 세 개를 켜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암성사는 "보국안민이 되고 못되는 것은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특별기도에 달려 있으니 정성껏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암성사는 이 49일 특별기도가 끝난 후 상경한 고위 교역자들에게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

되는건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시 의암성사의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암성사의 결연한 의지에 의해서 3·1운동 당시 우리 교단은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3대원칙을 세우고 거사자금을 전담하는 한편, 기독교·불교계까지 포용한 민족대표를 선정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 하였습니다.

3월 1일 태화관에서의 독립선언, 거사 당일 「독립신문」 발행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주도적인 역할을 자담함으로써 거족적인 3·1독립운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근 10년 동안 비인간적인 무단통치를 시행하면서 물샐 틈 없는 헌병경찰제를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독립운동이 거족적으로 이

루어졌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으며 한울님의 감응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던 한반도에서 터져 나온 비폭력 독립운동을 본 세계의 지성인들은 '세계 혁명의 신기원'이라고 극찬해 마지않았습니다.

상해(上海)에서 발행하고 있던 영문판(英文版) '대륙보(大陸報)'의 다니엘 파이버 기자는 3·1운동 소식을 듣고 즉시 우리나라로 달려와 만세현장을 취재하고 "아! 이날 오랫동안 짓밟혔던 정의(正義)·자유(自由)·인도(人道)가 다시금 한국에서 늠름하게 움트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용기야말로 세계에서 겨룰 데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는 비폭력 민중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와 수감자가 발생하였으며, 천도교 또한 엄청난 타격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의암성사를 비롯한 핵심 지도부가 거의 투옥되고, 중앙총부는 일본군이 포위 점

령하여 한때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전국 교구의 피해 또한 엄청났습니다.

비록 일제의 만행으로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국권 상실로 인한 역사 단절을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이룩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면서 헌법전문에 명시된 그대로 3·1정신을 국가 발전과 민족통합의 동력으로 삼아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에 기초해서 남북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3·1절 기념행사를 함께 거행하고 이를 민족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의 그 날도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평화적 통일도 3·1정신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사유물이 아니요 세계인류의 공유물”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천도교는 문호적 종교가 아니요 개방적 종교”라 하였습니다.

천도교가 종교적 장벽을 초월해서 기독교와 불교계까지 포용하면서 전 민족을 아우르는 거족적인 3·1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암성사님의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선열들은 독립선언서에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大義)를 극명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국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첩경이 바로 이러한 선대의 유지를 받들

어 3 · 1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일절 101주년을 맞아 우리 천도교인들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정립된 3 · 1정신이 자손만대에 영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한울님과 스승님, 선열의 성령 앞에 엄숙히 심고하기를 바라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1(2020)년 3월 1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우리나라)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우리나라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

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

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

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인도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

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고귀하고 세상에 빛남)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

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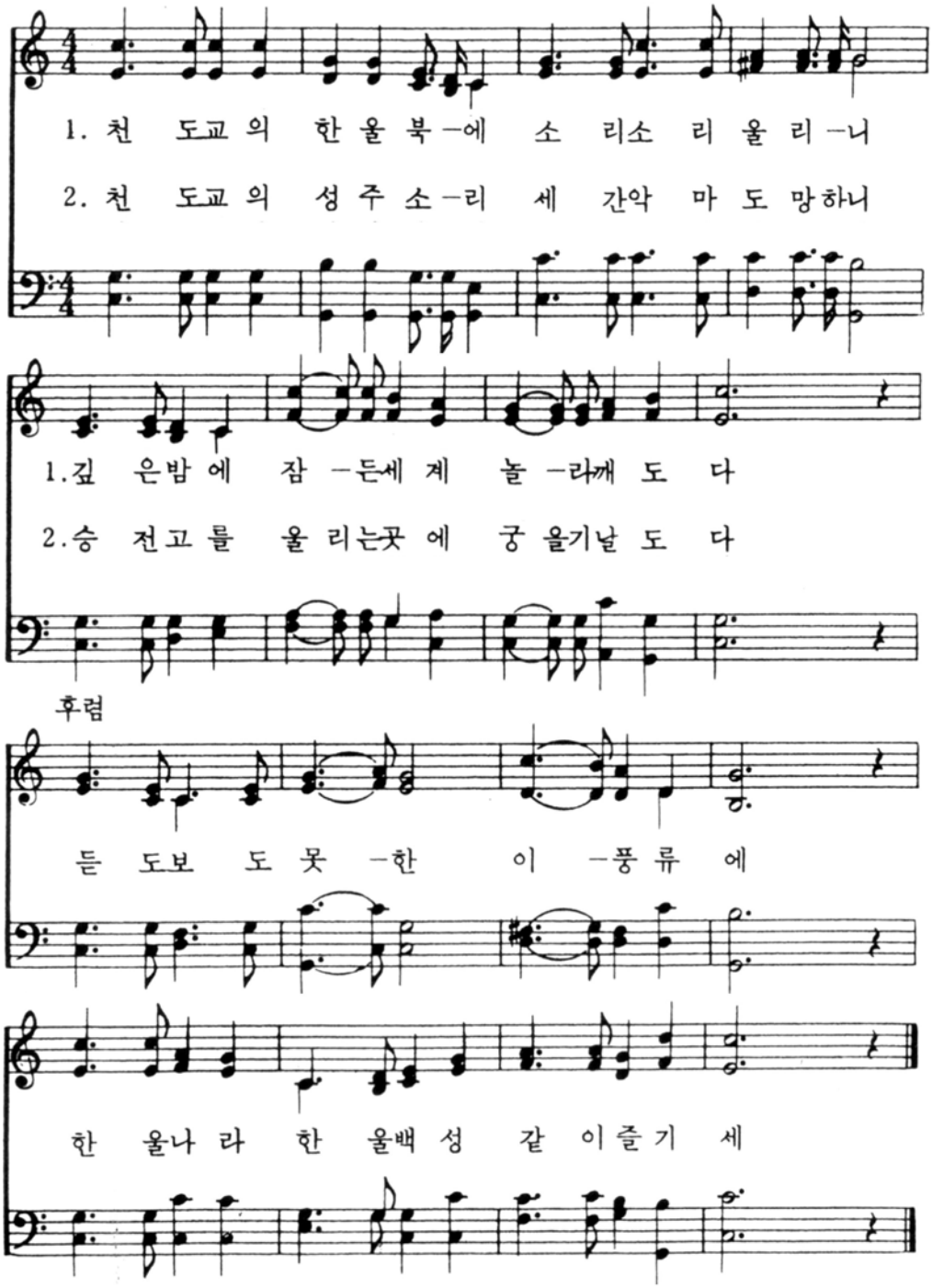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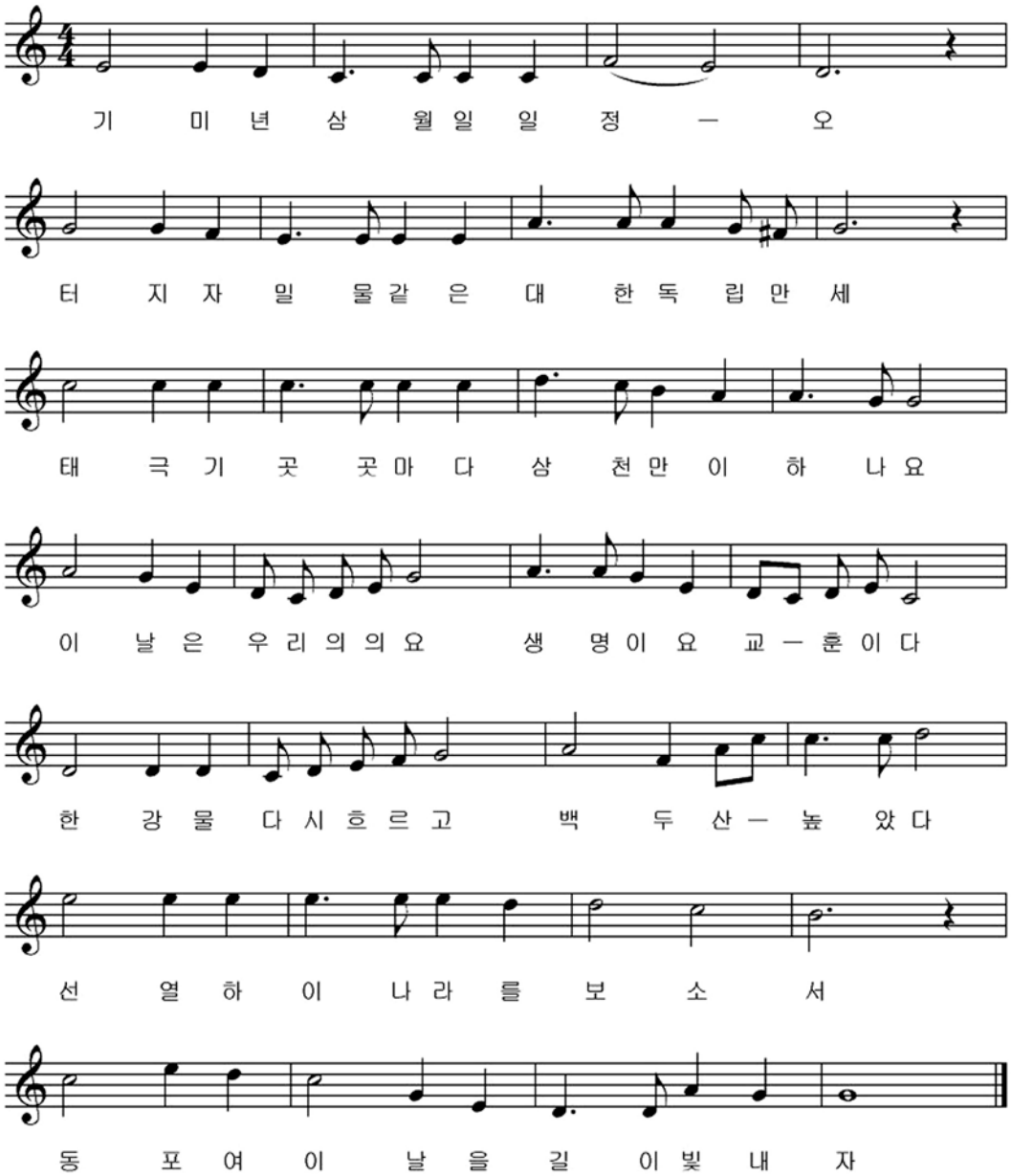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제17장 공 락 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 -에 소 리소 리 울 리 -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 -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1.깊 은밤 에 잠 -든세 계 놀 -라깨 도 다
2.승 전고 를 울 리는곳 에 궁 을기날 도 다
후렴
듣 도보 도 못 -한 이 -풍 류 에
한 울나 라 한 울백 성 같 이즐 기 세

삼일절 노래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터 지 자 밀 물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요
이 날 은 우 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여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 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